



남원 도동동, 생활지원사 12명과 간담회

남원시 도동동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지난 18일, 남원시 노인복지관 소속 도동동 생활지원사 12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긴급한 사회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사업을 위한 이불 수거, 배달 등 협조를 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내용으로 진행되고, 제95회 춘향제 · 고향사랑기부제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홍보 등 시정 홍보까지 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생활지원사들이 취약계층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은 물론, 세탁 전후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여 맞춤형복지팀과 소통, 취약계층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장학금 200만원 기탁

무주군 인재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손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은 지난 21일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이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종국 대표는 "무주 아이들의 잠재력에 든든한 어른들의 조력이 더해질 때 지역 발전의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은 무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북한 휴양 · 체험 ·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22년에도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양산업, 무주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21일 (유)남양산업이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허상석 대표는 "무주에 터를 잡아 무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남양산업은 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골재 도 · 소매업체로 2022년에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하며 무주군 인재 육성에 뜻을 함께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안, 무주군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주)이안의 이선민 대표가 21일 무주군을 방문,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선민 대표는 "아이들이 무주에서 나고 자라 공부하면서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대학에 가서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이안은 무주읍에 위치한 건설회사로 지난해에도 3백만 원을 기탁하며 무주군 장학사업에 뜻을 보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교육환경 개선 · 인재 육성에 지속적 기여’

전남일 전일콘크리트 대표, 부안의 인재육성 위한 장학금 1000만원 기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권익현)에 장학금 1,000만 원을 지난 18일 (주)전일콘크리트(대표 전남일)는 내고향 인재육성을 위하여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남일 대표는 상서면 소재의 수로관, 맨홀 등 친환경 콘크리트제품을 개발 · 생산하는 업체로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유 쿠폰 기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백미를 기탁하는 등 평소 이웃돌기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이번 기탁식에 배우자 손미화씨와 자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손미화(전북내사랑 꿈나무 부안지부회장)은 울



해초 회장으로 취임하고 꾸준히 이주여성과 조순가정을 위해서도 봉사하며,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서 부안군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회장은 "이번 기부가 부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중 첫 번째 기부로 학생들을 위한 지역 사회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해 준 전남일 대표와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군산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군산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1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단체장, 수상자, 시민, 자원봉사자 등 약 1,400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다양한 행사로 모두 하나 되는 따뜻한 자리가 연출되었다.

특히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먼저 식전 행사로 플루트 연주팀 '벨리플루트'이 따뜻한 선율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유공자 48명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또한 군산사회복지장학회는 지역 장애인 단체 13곳에 각각 20만 원씩 총 7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39명의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2부 문화한마당에서는 '가요열전'이 시선을 모았으며, 마술사 김승준의 퍼포먼스 퓨전 난타팀 '비트홀릭'의 역동적인 공연도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후 참석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 기념품과 간식 제공을



끝으로 즐거운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사)군산시장에인연합회 박경태 회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등한 사회 실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고창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려

고창군이 주최하고 고창군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박현규)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고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을 표어(슬로건)로 식전 문화 공연과 지적장애인 2명의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현규 고창군 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일상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장애인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사랑과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장애인의 날은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가는 세상을 되새기는 날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고창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등,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대표이사 서필환)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모금액은 465만원으로 피해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서필환 태권도원운영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산불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와 치유를 위한 노력에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은 영관리주식회사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사랑의 헌혈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공동체 발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주천면, 다문화 가족 소통 · 화합의 장 마련

남원시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남원시가족센터와 관내 2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을 초대해 다문화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 강사가 다문화 부부들의 원활한 관계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과 원예체험(공기정화식물심기)도 진행해 가족들과 추억도 쌓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한 참석자는 "부부교육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환경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니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4·19혁명 기념식

남원시는 4·19 혁명일을 맞아 지난 4월 19일, 금지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도 · 시의원, 기관 · 사회 단체장 마산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임원진,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념사에서 "고향 남원을 떠나 멀리 마산에서 희생한 김주열 열사와 4·19혁명을 함께한 우리 선대들의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하자"라며 추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밀반찬 지원사업 본격 시작

남원시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든든한 찬(사랑의 밀반찬)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독거노인, 한부모, 1인 중장년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20가구에 매월 1회, 총 8개월간 밀반찬을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1일 1가구 방문 실천을 통해 지난 3월 한 달간 봉창 협의체 위원, 맞춤형복지팀이 협력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금동행정복지센터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폈다.

최인술 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행복한 생일상 나눔, 김장간지 지원사업 등 금동형 특화복지사업을 통해 촘촘한 돌봄 체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으며, 김봉래 동장도 "1일 1가구 소문행정은 행정이 먼저 다가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복지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동충동 지사협, 장수사진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지난 18일, 관내 취약계층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지원사업인 '영원한 미소'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품위 있는 생을 기념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되었으며, 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문 화예술훈예(대표 김화철)의 이 · 미용 재능기부와 남원시 화인단의 한복과 촬영 공간 후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김차남 동장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소중한 추억을 더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영광교회, 어려운 이웃에 달걀 120판 기탁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21일 영광교회(목사 하재삼)가 부활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달걀 120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 영광교회는 매년 부활주일마다 달걀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달걀 120판은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재삼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준비한 온정의 선물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정완 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달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